

##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2023년 전시와 주요 계획		
문의	취재문의 : 장효진 (t. 031-201-8545 m. 010-2953-1023)		
배포	2023. 1. 25.	쪽수	총 7 매

# 백남준아트센터 2023년 전시와 주요 계획

## ■ 2023년 사업 방향 –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 바꾸는 미술관

- 예술과 기술의 새로운 발상을 깨우는 동시대 작가들 집중 조명
- 미디어 아트 미술관의 프로그램 형식을 고안할 수 있는 작가 협업 증진
- 백남준 레이저 작업에 대한 작가 공동 연구, <트랜스미션 타워> 국내 최초 전시
- 개관 15주년 국제예술상 개편, 기술보고서 발간

## ■ 2023년 전시 계획

-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2023년 3월 9일 ~ 6월 25일
- 《소통의 기술》 2023년 4월 27일 ~ 2024년 2월 12일
- 《신매체전 : 전시입니다만》 2023년 7월 20일 ~ 11월 30일
- 《트랜스미션 타워, 다시 빛으로》 2023년 8월 31일 ~ 10월 27일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지난해 백남준 탄생 90주년 “나의 축제는 거칠 것이 없어야” 기획을 통해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손잡고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며 보다 많은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대형 사업들을 성공리에 완수하였다. 이를 뒤로 하고 2023년에는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 바꾸는 미술관”이라는 비전 아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하는 전시와 주요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3월 봄을 여는 첫 전시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는 백남준아트센터가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수집한 9명(팀)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신소장품전이다. 백남준 외의 작가들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게 되면서 백남준아트센터가 미디어 아트 미술관으로서 다뤄야 하는 시간의 층위는 한결 섬세해졌다. 김성환, 김희천, 노진아, 박선민, 박승원, 안규철, 언메이크랩, 업체x류성실, 진시우의 작품들로 이러한 시간의 질문들을 아름답게 풀어놓는 전시이다.

이어서 7월에 열리는 《신매체전 : 전시입니다만》은 ‘뉴미디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만큼 ‘새’ 기술이 빠르게 ‘옛’ 기술이 되는 시대에, 매체의 고전성과 첨단성을 나란히 두고 탐구하는 국내외 신진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전시이다. 연령이나 세대의 신진이 아니라, 기술의 효과를 좇는 예술 너머의 미디어 아트 신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종족으로서 신진들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의 미디어로서 전시의 형식을 실험한다.

둘째, 4월에 시작하는 백남준전 《소통의 기술》은 백남준 예술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을 주제로 <피아노와 편지>, <달은 가장 오래된 TV> 등 대표작들과 함께 백남준의 삶을 연대기로 보여주는 전시이다. <랜덤 액세스 오디오 테이프> 등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최근 수집 소장품도 첫선을 보이는 자리이다. 주요 작품들의 기술적 원리를 관객들과 흥미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장치를 전시 공학적으로 설계할 것이다. 백남준전과 연계한 다채로운 <NJP 학교>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특히 올해 백남준아트센터의 배움 프로그램은 **창작을 통해 감상을 배우는 <NJP 크리에이티브>에서 국내외 작가들과 협업, 연극·무용·음악·영화 등 다양한 예술 형태를 융합하여 기획할 예정**이다.

셋째, 백남준아트센터가 지난해 본격화하였던 백남준의 후기 미디어인 레이저 기술에 대한 학예 연구를 심화하여 올해는 소장품인 백남준의 대형 야외 설치작 <트랜스미션 타워>의 **레이저 복원 작업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로 전시할 계획**이다. 10미터 높이 송전탑 형태로 빨강, 초록, 파랑의 레이저빔을 쏘며 주변 경관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공미술 성격의 이 작품은 2002년 뉴욕 록펠러광장, 2004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마당에 전시된 바 있다. 백남준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였던 노먼 발라드를 비롯하여 **빛을 주 매체로 다루는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 <트랜스미션 타워> 레이저 부분의 기술적인 작동을 복원하고 백남준의 예술적 구상을 현재화하여 9월 야외 전시로 그 빛의 대향연을 펼칠 계획**이다. 연구 과정을 발표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개최한다.

넷째,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5주년을 맞아 두 가지 사업을 특별 추진한다. 먼저, **국제예술상 개편**이다. 명실상부 백남준의 권위로 수여하는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은 현재 국내 유일의 ‘국제’ 수상제도로써 지금까지 수상한 작가들이 독보적인 계보를 이루어 왔다. 제8회를 맞는 올해 제도를 정비하여 재개할 국제예술상을 통해 작가 미술관인 백남준아트센터가 우리 시대 중요한 작가들에게 창작의 동력을 제공하는 토양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다음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중 기술적 설치를 요하는 백남준의 작품 30점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온라인으로 한영 발간**한다. 각 작품의 구성과 도면, 물리적·전기적·비디오 연결과 작동을 알기 쉽게 도해하고 설명하는 보고서이다. 백남준 전문 테크니션과 학예연구사가 그동안 축적한 기술 지식을 공유 자원화한다는 취지이며 앞으로 여러 연구와 감상에 유익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2023년 주요 사업별 대표 이미지

###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 ■ 개요

- 전 시 명 :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국문), On Collecting Time (영문)
- 전시기간 : 2023년 3월 9일 ~ 6월 25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제2전시실
- 참여작가 : 김성환, 김희천, 노진아, 박선민, 박승원, 안규철, 언메이크랩, 업체x류성실, 진시우
- 전시기획 : 이채영(백남준아트센터 학예실장)

#### ■ 주요 전시작 이미지



노진아, <진화하는 신, 가이아>, 2017, 레진, 나무, 인터랙티브 시스템, 350×300×200cm, 사진-조영하.



박선민, <버섯의 건축>, 2019, 4K 단채널 비디오, 컬러·유성, 15분 18초.

### 《소통의 기술》

#### ■ 개요

- 전 시 명 : 소통의 기술 (국문), The Art of Communication (영문)
- 전시기간 : 2023년 4월 27일 ~ 2024년 2월 12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1층 제1전시실
- 주요작품 : 백남준 <피아노와 편지>(1960), <달은 가장 오래된 TV>(1965), <랜덤 액세스 오디오 테이프>(1963), <바이 바이 키플링>(1986), <달에 사는 토끼>(1996) 등
- 전시기획 : 조권진(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 주요 전시작 이미지



백남준,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피아노와 편지>, 1960(피아노), 1962-1980(편지), 조각·설치, 가변크기.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2000), CRT TV 모니터 13 대, 12-채널 비디오, 컬러·무성, LD; <E-Moon>, 단채널 비디오, 컬러·유성, DVD.

## 《트랜스미션 타워, 다시 빛으로》

### ■ 개요

- 전 시 명 : 트랜스미션 타워, 다시 빛으로 (국문) Transmission Tower, Lightful Again (영문)
- 전시기간 : 2023년 8월 31일 ~ 10월 27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야외
- 참여작가 : 백남준, 노먼 발라드 등
- 전시기획 :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비스트), 이기준(백남준아트센터 테크니션)
- 사업내용 : 소장품 <트랜스미션 타워> 레이저 복원 및 야외 전시 개최

### ■ 주요 이미지



백남준, 《트랜스미션》 전시 모습 (밤), 2002, 뉴욕 록펠러광장,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백남준, 《트랜스미션》 전시 모습 (낮), 2002, 뉴욕 록펠러광장,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

##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15주년 사업

### ■ 국제예술상 개편

- 사업명 :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 공개발표 : 2023년 10월 초
- 담당자 : 김윤서(백남준아트센터 학예사)
- 사업내용 : 백남준 예술의 현재적 의미를 오늘의 예술가들을 통해 사유하고 증진하기 위해, 시각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통섭한 백남준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확장시킨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 ■ 기술보고서 발간

- 사업명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품 기술보고서 온라인 발간
- 공개발표 : 2023년 10월 초
- 담당자 : 이기준(백남준아트센터 테크니션)
- 사업내용 : 백남준아트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코끼리 수레>, <삼원소>, <걸리버>, <트랜스미션 타워> 등 기술적 설치가 들어가는 작품 30점에 대하여 물리적·전기적·비디오 연결과 작동을 상세하게 도해한 한영 기술보고서

### ■ 주요 이미지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역대 수상자:  
캠프(2020), 트레버 페글렌(2018), 블라스트 씨어리(2016),  
하룬 미르자(2014), 더그 에이트킨(2012), 브뤼노 라투르(2010),  
안온미·이승택·로버트 애드리안 엑스·씨엘 플로리에(2009).



백남준, <코끼리 수레>, 2001, 모니터 설치 뒷면 (부분).

## [붙임 1] 2023년 주요 일정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소통의 기술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신매체전 : 전시입니다만					
						트랜스미션 타워, 다시 빛으로					
						학술 심포지엄		· 국제예술상 · 기술보고서			

	전시명	전시기간	장소
1	시간을 소장하는 일에 대하여	3월 9일(목) ~ 6월 25일(일)	2층 제2전시실
2	소통의 기술	4월 27일(목) ~ '24년 2월 12일(월)	1층 제1전시실
3	신매체전 : 전시입니다만	7월 20일(목) ~ 11월 30일(일)	2층 제2전시실
4	트랜스미션 타워, 다시 빛으로	8월 31일(목) ~ 10월 27일(일)	야외

\* 전시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관람종료 1시간 전 입장 마감
- 휴 관 일: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매년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 상세정보: <http://www.njpartcenter.kr/>

## [붙임 2] 백남준 추모 17주기 안내

### □ 백남준아트센터 행사

- 일 시 : 2023년 1월 28일(토)
- 장 소 : 백남준아트센터
- 내 용 :
  - 오전 10시, 김성은 관장 강연 (도슨트 양성 교육)
  - 오후 2시, 최형섭 교수 강연 (전시 연계 토크)
  - 온라인, 비타우타스 란즈베르기스 연설, 그레이 코드 공연 (영상 공개)

백남준아트센터는 올해 추모 17주기를 기일 하루 전인 1월 28일(토)에 **강연 프로그램과 영상 공개**로 기리고자 한다. 오전에는 전시해설 도슨트 양성 교육 과정의 첫 시간으로 백남준아트센터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하는 **김성은 관장**의 강연, 오후에는 《백남준의 보고서 1968-1979》 전시와 연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형섭 교수**의 기술사 강연이 열린다. 또한 지난해 심포지엄에서 플렉서스 동료이자 리투아니아 전 최고회의 의장인 **비타우타스 란즈베르기스**가 백남준을 추억하며 보낸 온 연설과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그레이 코드**의 전자음악 공연 영상을 이날 유튜브에서 공개한다.

### □ 봉은사 추모재

- 일 시 : 2023년 1월 29일(일) 오후 1시
- 장 소 : 봉은사 법왕루
- 주최 및 주관 : 봉은사

백남준의 유해가 있는 봉은사에서 17주기를 맞이하여 기일인 1월 29일(일) 오후 1시에 추모재를 갖는다. 어린 시절 백남준의 추억이 깃든 봉은사 법왕루에는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이와 함께 고인의 사진과 하영진 조각가가 주조한 작품인 백남준의 데스마스크(사후 고인의 얼굴을 청동으로 본떠 만든 상)가 설치되어 있다. 봉은사는 백남준을 기리는 많은 이들과 함께 백남준 작가의 예술 세계가 후대에 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추모재를 2007년부터 지내고 있다. **불교 전통의 천도재 형식**으로 봉은사 주지스님이 주관하여 기일에 개최되는 추모재는 예년과 같이 봉은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 예정이다.